

포천사회 知識人 ⑤

대진대학교 양 만 섭 교육대학원장

# 교육대학원 16개 전공 석사학위과정 개설

## 영어발달사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은 대진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민주교육의 근본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학 및 각 전공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한층 심오하게 연구하여 교육전문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자질과 독창적인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1일에 개원했다. 대진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하며 전공별로 교원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학생들은 무시험 검정으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으로 16개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학정원은 92명이고, 4학기제(영양교육전공은 5학기제)이며 수업은 야간에 진행된다.”

대진대학교 양만섭(53·사진) 교육대학원장이 교육대학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양 원장은 전북 순창 출신이며 순창군 쟁치면 쟁치초등학교, 순창북중학교, 순창고등학교,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원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 원장은 1994년 3월 1일자로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부임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영어접사 부가규칙에 관한 연구’이며 전공은 영어형태론이다. 영어형태론이란 말을 할 때 단어의 구조 및 생성과정, 변화과정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과목은 영어형태론과 영어발달사, 실용영문법, 영어학개론 등이다.

양 원장은 교육대학원장으로 그동안 교육대학원은 교사양성기능과 재교육과정을 통해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직 교사에게는 5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전공은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 ▶사서교육 ▶특수교육 ▶과학교육 ▶사회과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육 ▶평생교육 ▶영양교육 ▶교육학이다.

양 원장은 최근 교사 승진 가산점수 제도가 변경돼 과거에 석사학위를 2개 취득하면 2점을 부여하던 방침을 석사학위를 2개 취득하더라도 1점만 주도록 함으로써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06년 6월 1일 교육대학원장으로 부임한 양 원장의 주요업무는 교육과정 조정과 원



생들이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대해 양 원장은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개방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의 장서를 자랑하는 대진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면 깊이 있는 연구와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누구나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양 원장은 또 교육대학원에서는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자녀교육에 관한 상담은 물론 성적, 인성, 이성 상담 등 다양한 상담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사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2급 정교사는 1급으로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교사들은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학비가 저렴한 현실교사의 경우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교수진이 풍부하다.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사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양 원장은 대진대학교에 근무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1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양 원장은 교육은 단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미친 어떤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마

음으로 다가가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피교육자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교육자에 의해 제대로 된 지식이 전달 될 수 있다.

테니스와 골프, 바둑을 취미로 하고 있는 양 원장은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며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공부 못 한다고 나무라는 자식이 있다면 두 다리도 걷지 못하고 평생 업혀 다니는 장애아동을 생각해 보라. 두 다리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일 아닌가?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이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공 관련 학교 행사에 대해 양 원장은 중·고등학교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를 매년 봄에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2회 영어특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연구계획은 영어발달사를 연구함에 있어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고 싶다. 1500년 영어의 역사를 학생들이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하여 강의하고 싶다.

순창북·고흥동문화 회장으로 활동중이며 순창신문 운영에도 남다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양 원장은 포천신문이 좀더 보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 포천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로 군인가족도 많아 이처럼 다양한 독자층에 맞추어 신문을 제작하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보도하고 있다고 앞으로 좀더 다문화, 포용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려지는 분야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면 소외된 계층을 밝혀 등불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토대로 수준 높은 강의와 교육대학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 원장이 그동안 발표한 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 ▶영어대명사 굴절에 관한 연구 ▶영어형용사 굴절에 관한 연구 ▶영어동사 굴절에 관한 연구 ▶영어명사 굴절에 관한 연구 ▶영어자음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 모음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 차용어에 관한 연구 ▶영어기초회화 학습에 관한 연구 ▶언어학의 이해 공역 등 다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집중인터뷰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원

## “오피니언 리더 시민 대변인 역할해야”

###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의원 시민 참여 T/F팀 구성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원(사진)은 순수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포천사회의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타인들로부터 욕먹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포천사회를 민주도형이 아닌 시민주도형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 시민단체의 자생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갈등문제에 대해 “선출직이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힘이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종근 시의원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포천지역사회의 특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학원이나 지연, 소지역주의는 있다. 포천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포천사회는 혈연이나 지연, 소지역주의는 거의 없다. 다만 포천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지연이나 소지역주의를 너무 의식하는 게 문제다. 이 사람들은 표현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포천사회에 이익이 되는 계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 ▶포천시회 배타성에 대해

배타성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느 지역이나 토착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과거 텃세라고 하는 배타성은 극복하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 최근 포천시로 유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소위 외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활동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있다. 외지인과 토박이들간에 융화가 잘되고 있고 포천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생각한다.

포천시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기업인과 상인들이 많이 유입됐다. 또 장기근속 군인들이 포천에 정착해 많이 살고있다. 아들에 대한 시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산지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 ▶포천사회가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포천사회에서는 활성화된 시민단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순수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해 공직사회는 소극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즉 시민단체의 스스로에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들은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욕먹는 것을 싫어한다. 시민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모색해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포천사회는 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있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집행부도 시장현안 문제에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의회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지식과 문화, 시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사회 갈등원인과 해소방안은

선출직 갈등은 선거로 인한 것이다. 문제시되는 갈등은 선출직이 선거때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선출직은 본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갈등은 서로가 지역발전을 꾀하다 보면 그럴수 있다. 시민단체 활성화를 통해 선출직들의 갈등을 감시하고 최소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선출직이 말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시민들이 선출직의 갈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지역사회 갈등은 선거로 인한 경우가 많아 오피니언 리더들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시민들의 힘이 오히려 효력이 있다고 본다.

#### ▶포천시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포천시의 현안문제는 크게 교통문제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포천시 CEO는 일이 너무 많다. 포천시 CEO의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포천시 담당 실국장, 과장에게 결재권을 할애해 줘야 한다.

교통문제의 경우 43번 국도 교통정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자고속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지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의정부시에는 6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천구간은 4차선이다. 의정부시는 6차선 확보를 위해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포천시는 43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등 도로확보 계획은 많지만 착공한 것은 없다.

도로문제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선4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시스템상의 문제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관할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지역항공 유치사업 등 분야별로 T/F팀을 구성, 전문적인 사람을 영입하고 담당적으로 시의원과 시민, 집행부가 참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보다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농업이나 정보, 기술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외부 유출현상을 막아야 한다.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천시나 각 단체는 개최식을 하지 않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에서 행하는 개최식은 30여분 동안 진행된다. 그런데 시장이나 의장 인사말은 어느 행사를 막론하고 비슷비슷하다. 행사는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개최식이 너무 길다보니 지루해 질 수밖에 없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또 개최식이 끝나자마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행사장은 썰렁해진다. 전국 몇몇 자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참석자 소개만 하고 본 행사를 진행한다.

#### ▶포천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에 대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충실히 해야한다. 또 지역현안 문제나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포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시민 대변인 역할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주 만나 자주 토론을 해야한다. 그런데 포천지역의 경우 국회의원과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번도 없다.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자리에 모여 지역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 등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를 입체적으로 보도해 주길

# 주인의식 · 성실시공 · 실력배양

### 장마철에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합시다!

#### 취급공사

- 공장
- 병원
- 가로등
- APT
- 상가
- 인테리어
- 빌딩
- 호텔
- 학교
- 기계소방
- 전기소방
- 신호등 및 기타

##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 ~ 4 / Fax : 031)542-1115

### 포천한전 협력업체



최 두 열 대표이사

“열린경영으로 기업의 최고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